



## 해외산업간호정보

# 제12회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에 다녀와서



조 동 란 교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  
(필자 중앙)

### 필

자는 5월 20일부터 22일 까지 일본 오카야마에서 열린 제 12회 한일학술집담회에 참석하였다. 원래 이 집담회는 일본 경도 공장 보건회와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소속된 의사들이 서로 만나 양국간의 현안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말 그대로 "집담회"로 시작하였고 양국 간에 서로 왕래하며 번갈아 개최를 하고 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가벼운 집담회에서 논문과 보고서 발표의 장으로 그 진행양상이 바뀌었다.

그 동안에는 양국간의 교류였으나 올해부터는 중국까지 3개국이 참석하기로 하였고 6명이 신청하여 명실 공히 국제 학술대회의 면모를 갖추려고 하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중에서 단지 한 명만이 참석을 하였다. 한국측의 참가자는 70여명, 일본에서는 100명 정도가 참석을 하였는데 참석자의 대부분은 의사였고 위생분야와 간호사는 극소수이었다.

발표는 3일 동안 이루어 졌는데 본 회의를 개최하기 전 날인 20일에 청년부 학술교류회에서 비교적 젊은 층의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그 후 이틀 동안 본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청년부 학술교류회의 금년 주제는 "사업장의 보건교육"이었고 필자는 청년부에서의 첫 번째 발표자로서 "한국의 산업보건인력의 교육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에 앞서, "본인은 오늘 매우 기쁘다. 한국에서는 항상 원로그룹에 속하였는데 여기서는 청년부에 속하게 되어서 아주 행복하다." 라고 멘트를 하였더니 와! 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다음날 본 회의에 참석해 보니 왜 내가 청년부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참석자들 중에 나의 아버지 정도 되는 분들이 아주 많았고 한국 산업보건의 원로라고 꼽는 분들은 거의 다 참석한 것으로 보였다. 이 분들이 30여년 동안 민간주도로 한국의 산업보건을 이끌어 오면서 시행착오를 거듭

한 끝에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는 세대교체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로들은 모두 부부동반이었고 젊은 사람들도 부부동반으로 온 경우도 있었는데, 부인들을 위한 관광일정이 따로 잡혀 있었다.

청년부에서 발표된 내용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건교육, Life-skill method에 기초한 건강증진사업, 집단 산업보건관리를 받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 산업보건 투자에서 사업주의 투자지지를 높이기 위한 경영자와 행정보고라인의 관리방법, 산업보건사업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공업단지 집단보건관리에서의 간질환 관리의 평가 방법, 양국간의 공동 연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양국의 대표자들의 의견 등이 발표되었다.

동경여자의과대학의 간호대학 교수는 일본간호대학의 커리큘럼과 졸업 후 과정을 소개하였다. 일본에서도 산업간호의 교육은 지역사회간호학의 일부로 교육되어 왔으나 최근 몇 개의 대학에서 독립된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시행중이다. 한 예로, 1993년에 설립된 오까야마 현립 대학교에서는 학사과정에서 산업간호과정을 독립 개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한 학기에 90분간의 산업보건 강의가 15회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강생들은 사업장 실습을 통하여 현장상황에 맞는 관리방법을 습득하도록 하여 우리와 유사하였다. 우리는 단지 한 개의 산업보건대학원에 독립된 과정이 있을 뿐 학부에는 아직 없어 조금 부러웠다. 졸업 후 현장에서 일하는 산업간호사들을 위한 계속교육은 협회와 관련학회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간호협회, 일본산업위생학회간호분회, 건강보험조합연합회 등에서 산업간호사들을 위한 계속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회의 세미나에도 참가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산업간호사들의 근무상황 등 여러 가지 면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였으나, 그들은 산업간호사가 왜 위생학회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조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조차 가져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예측적인 상황을 너무 당연시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산업간호만의 협회와 학회로 독립하여 산업간호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발표 도중 도시락을 나누어 주고 먹어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었다.

저녁에는 교류회가 있었는데 교류회란 노래방에 가서 양국의 노래를 부르는 흥겨운 시간을 갖는 것으로, 다른 국제학술대회와는 달리 친목도모를 위한 시간이 많았다. 일본사람들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좋아하여 모두 한 목소리로 열창을 하였고 중국의 참가자는 중국노래를 불러서 국제적인 모임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다음날 부터는 합동발표회가 열렸는데 제 1부는 “건강관리와 직업병 예방”을 주제로 수은중독, 석면, 신경독성물질, 직업병과 유전적 요인, 직업적 스트레스와 정신보건, 산업피로 및 순환기 질환, 중국의 직업병발생현황과 대책 등 십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정신 신체적으로 직업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연구중의 일부는 한일 양국간의 비교가 가능한 공동연구이었고, 현재도 다수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제 2부에서는 특강인 ‘한국의 국가 국민건강증진사업과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의 연계’에 이어 “작업환경관리”를 주제로 근로자의 유기용제 폭로, 마노산과 음식물섭취, 요 중대사물질 분석방법,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연관성 평가, 중국의 초염토진폐증, 인간공학, 휴먼에러, 노동환경 등에 관한 연구발표와 보고가 계속되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유일한 산업위생분야 참가자가 ‘굴뚝의 종류와 우수유입방지효과’ 라는 좀 색다른 발표를 하였다. 이날 저녁에는 호텔에서 환영만찬회가 열렸고, 일본측의 회장이 정중한 환영의 인사를 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일본의 의료보험과 산업보건서비스’ 특별강연에 이어 “산업보건과 지역보건과의 접목”이라는 주제 하에 양국에서 지역사회의 자원과 산업보건사업을 어떻게 연계시켜 시행해 나가고 있는가를 주로 중소기업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일본에서는 건강증진과, 직업병에 관한 보건교육 등의 보고를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의 보건소를 산업보건사업에 연계시켜 공공조직과의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 등 공공기관과 산업보건사업과의 연계를 소개하고 권유하는 것을 많이 발표하였다. 공공 기관인 보건소와 산업보건사업과의 연계는 서구라파에서는 의료가 사회화되어 있으므로 이미 오래 전 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산업간호분야에서도 이미 학술발표를 통하여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에서 구강건강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8020 캠페인으로 표현되는 이 사업은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 불소양치 등의 사업으로 80세에 20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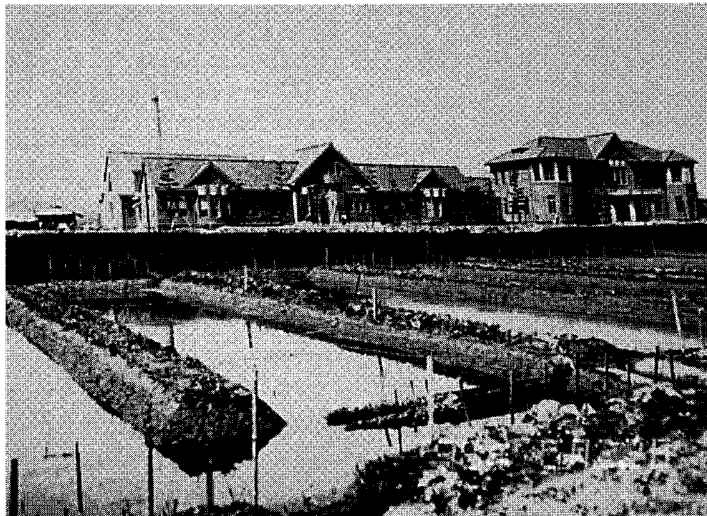
발표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오후에는 일본산업보건의 발상지이며 일본 최초의 노동위생연구소가 설립된 옛 방적공장 자리를 견학하였다. 학술대회가 열렸던 오카야마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로 과거에는 방적공장을 비롯하여 많은 산업시설이 있었던 도시이다.

1888년에 세워진 구라시끼 방적공장에 최초의 공장병원이 설립되었고, 거기에서 일한 간호사 역시 일본 산업보건 초기의 산업간호사로 기록되고 있는 만큼 산업간호와도 관련이 깊은 유적지이다. 기념관 안에는 옛날에 쓰던 기계와 공장, 병원, 노동연구소의 연혁, 초대 소장의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었고, 지금은 옛 공장부지에 숙박시설을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지방의 작은 공장의 역사를 거국적으로 보전하고 유지하는 자세가 부러웠으며 우리나라

라에는 이런 시설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없는 것 같아 섭섭하였다.

오카야마는 일본의 3대 정원이라는 전통적인 정원으로도 유명하였는데 일정이 짧아서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 온 것이 조금 아쉬웠다. 또한 '히로시마'에서 비행기를 탔는데도 '평화의 공원'을 가 보지 못한 것 역시 아쉬운 점인데, 시간 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도 안 된다고 한 것은 원폭피해를 당한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피해자인데도 일본사람들이 반대하여 위령탑이 공원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한 쪽 끝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한일간의 미묘한 국민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2000년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 산업보건대회에 참석하고 2001년에 북경에서 만나자는 인사를 뒤로 하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았던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간호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때문이었을 것이다.



일본최초의 산업간호사가 일했던 병원  
(현재는 기념관과 호텔로 대치)